친환경차 대세·휘발유보다 비싼 경유

디젤차주 "주유소 갈 때마다 한숨"

"이럴 거면 왜 디젤차를 샀는지 모르겠어요. 연비를 생각해 경유차를 샀는데, 휘발유보다 경유가 더 비싸니 주유소 갈 때마다 한숨만 나온다니까요."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뛰어넘는 역전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경유차 외면이 심해지는 추세다. 여기에 최근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를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경유차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도 친환경차 모델을 잇달아 출시하는 것과 달리 경유차 모델은 줄여가고 있다는 점에서 경유 승용차가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분위기다.

3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판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경유 모델 판매량은 4만3517대(국산 3만4593대·수입 8924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만4346대(국산 6만1516대·수입 1만2830대)보다 41.5%나 감소한 것이다.

올 1분기 경유차 판매 비중은 13.5%로 2008년 18.5%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5년 전인 2017년 36.4%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2015년 경유차가 잘 팔리던 당시 경유 승용차 판매 비중은 국산차가 41%, 수입차는 68.8%였다는 점과 대비하면 급격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경유차 판매가 급감한 것은 전기차를 필두로 한 친환경차의 급성장과 함께 최근 치솟은 경유 가격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세계 완성차 업체들도 '탄소중립'에 나서며 경유 승용차 비중을 줄이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게다가 휘발유보다 비싸진 경유 가격은 경유차 감소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 게 자동차 업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ℓ당 2006.92원으로, 휘발유 가격(2010.13원)과 큰 차이가 없을 뿐더러 최근 경윳값 역전 현상도 반복되고 있다.

광주지역 평균 경유 가격은 1992.67원으로, 휘발유 가격(1996.07원)과 큰 차이가 없고, 전남은 경유가 2006.75원으로 휘발유(2004.97원)를 뛰어넘은 상태다.

1분기 경유차 4만3517대 판매
지난해보다 41.5% 줄어 들어
전체의 13.5% '14년만에 최저'
완성차업계도 경유 모델 축소

이런 상황에서 올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경유 승용차 판매량은 15만대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간 경유 승용차 판매량이 20만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2008년(18만9024대) 이후 14년 만이다.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이 모두 경유 모델 출시와 판매를 급속도로 줄이면서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차 판매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완성차 5개사를 기준으로 올해 1분기까지 판매된 경유 승용차 모델은 총 16종으로, 2018년 40종보다 60%나 감소했다.

기아는 2018년 39.1%에 달했던 경유 승용차 비중을 올해 1분기 11.7%까지 줄이는 등 적극적으로 친환경차 생산·판매에 나서고 있고, 특히 경유 모델 중 인기가 높은 카니발에도 하이브리드 모델 투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의 경우 올해 1분기 기준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팰리세이드의 경유차 비중이 63.4%로 높은 편이지만, 향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아이오닉 7이 출시될 예정이다. 제네시스도 플래그십 SUV를 전용 전기차로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수입차 브랜드도 경유 모델의 빈 자리를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채우고 있어 국내 시장에서 경유 승용차는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수입차 브랜드 아우디, BMW, 메르세데스-벤츠의 경유차 비중도 2018년 각각 69.4%, 61.0%, 35%에서 올해 1분기 11.9%, 5.9%, 22.7%로 급감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친환경차의 상품성 강화, 전용 전기차 등 다양한 친환경차 라인업 추가로 경유차 판매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윳값 폭등으로 경유차 입지가 더 좁아졌다"며 "포터와 봉고 등 대표적인 상용차도 유가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전기차 모델 판매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 고성능 'N' 3종, 내구레이스 완주 현대자동차 고성능 브랜드 N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경기로 꼽히는 '2022 뉘르부르크링 24시 내구레이스'에서 우승과 함께 7년 연속 전 차종 완주에 성공했다. 현대차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이번 대회에서 고성능 브랜드 N 라인업인 ▲엘란트라 N TCR(국내명 아반떼 N TCR) ▲i30 N TCR ▲i30 N Cup Car 등 총 3대가 출전해 엘란트라 N TCR과 i30 N TCR이 TCR 클래스에서 각각 1, 2위를 거뒀다. i30 N은 VT2 클래스에 출전해 5위를 기록했다. 종합순위는 각각 18위, 31위, 83위다. 주행 중인 i30 N Cup Car, 엘란트라 N TCR. 〈현대차 제공〉

현대차그룹-정몽구 재단, 스타트업에 1000억 투자

2027년까지 250개 육성·일자리 6000개 창출 등

현대차그룹과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오는 2027년까지 스타트업을 상대로 한 1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스타트업 250개 육성, 일자리 6000개 창출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에 나서기로 했다.

그룹과 재단은 이날 'H-온드림 오프닝 임팩트 데이' 행사를 열고 스타트업 육성 5개년 비전을 공개했다.

현대차그룹과 정몽구 재단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H-온드림 사회적 기업 창업 오디션',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등의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전개해왔다. 지난해부터는 임팩트 스타트업(사회문제 해결로 사회적 영향력과 수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모집 단위를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23년부터 시작되는 5개년 비전은 육성부터 투자까지 규모를 대폭 늘렸다. 우선 1000억원 규모의 투자 지원을 한다. 신규 펀드를 조성해 150억원을 직접 투자하고, 기업설명회(IR) 지원이나 인베스터 데이 개최 등으로 85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다.

이를 통해 임팩트 스타트업이 초기 자금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규 스타트업 250개를 육성해 국내 저변 확대도 도모한다.

고용 성과가 우수한 임팩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특화 트랙을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규 선발하는 스타트업 수를 지난해 기준 연간 28개에서 내년부터 연간 50개로 늘릴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6000개가 창출될 수 있도록 돕는다. 경영, 인적자원 관리 등 스타트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동시에 공동 채용박람회를 마련하는 등으로 지원을 제공한다.

향후 5년간 진행하는 사업에서는 환경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임팩트 스타트업의 참여를 늘리고, 해당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화창한 하늘 아래 맘껏 달린다

마세라티 컨버터블 슈퍼카 'MC20 첼로' 공개… '제로백' 3초

이탈리안 하이퍼포먼스 럭셔리카 마세라티는 최근 이탈리아 모데나 본사에서 열린 글로벌 프리미어 행사에서 컨버터블 슈퍼 스포츠카 'MC 20 첼로'(Cielo·사진)를 처음 공개했다.

첼로(Cielo)는 이탈리아어로 '하늘'이라는 뜻이다. 기존 MC20 쿠페 모델의 퍼포먼스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야외에서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게 마세라티의 설명이다. 'MC'는 마세라티 코르세(Maserati Corse)의 약자로 '레이싱'을 뜻하고, '20'는 브랜드의 새 시대를 시작한 2020년을 상징한다.

MC20 첼로는 고급스러움과 날렵함의 조화를 이룬 디자인이 특징이다. 루프가 열려 있을 때나 닫혀 있을 때 모두 풍동실험실에서 360도 테스트를 거치는 등 공기역학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

특히 컨버터블 모델임에도 시속 0㎞에서 100㎞에 도달하는 이른바 '제로백'이 3초로, 최고 속도는 320㎞/h 이상을 자랑한다. MC20 쿠페 모델과 마찬가지로 100% 마세라티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V6 네튜노 엔진이 장착됐다.

또 MC20 첼로에 적용된 접이식 글라스루프는 PDLC(Polymer-Distributed Liquid Crystal) 기술이 적용돼 중앙 화면의 버튼 터치 한 번으로 투명에서 불투명한 상태로 즉시 전환이 가능하다. 또 단열 및 개폐 속도(12초) 측면에서도 동급 최강의 성능을 갖췄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마세라티 다비데 그라소 CEO는 "글로벌 슈퍼 스포츠카 시장에서 컨버터블 부문은 35%에 달한다"며 "마세라티는 MC20 첼로 모델로 컨버터블 슈퍼 스포츠카 부문의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기아 첫 PBV 니로플러스 '출발 좋다'

택시 모델 등 8000대 사전계약…7월까지 시승행사

기아가 첫 번째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Purpose Built Vehicle) '니로 플러스'〈사진〉를 30일 출시했다.

니로 플러스는 지난 12일 사전계약을 개시한 이후 27일까지 12영업일 동안 약 8000대가 계약되며 기아의 본격적인 PBV 사업의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는 평가다. 택시 모델과 업무용 모델의 비율은 각각 48%와 52%로 나타났다.

니로 플러스는 1세대 니로 EV를 기반으로 전고를 80㎜ 높이고 실내 구성을 최적화해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확보했다.

또 64.0㎾h 고전압 배터리와 최고 출력 150㎾ 모터를 조합해 1회 충전 시 392㎞(17인치 타이어 기준 복합전비 5.3㎞/㎾h)를 주행할 수 있다.

특히 도심 주행의 경우 1회 충전으로 433㎞를 주행할 수 있어 도심 위주로 운행하는 고객에게 최적화된 이동 경험을 제공한다는 게 기아의 설명이다.

택시 모델은 택시 영업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올인원 디스플레이'와 슬림형 헤드레스트, 워크인 디바이스, 2열 시트벨트 버클 조명 등 승객을 배려한 편의사양을 탑재했다.

기아는 택시 영업을 위한 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추가되는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조작하며 산만해지는 운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인원 디스플레이를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기아는 올인원 디스플레이에 내비게이션, 앱 미터, 디지털운행기록계를 통합 적용했다.

또 기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협업해 올해 중으로 무선 업데이트(OTA)를 통해 올인원 디스플레이에서 카카오택시 호출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다. 승객이 택시 호출 시 올인원 디스플레이를 통해 호출을 확인하고 스티어링 휠 버튼으로 수락할 수 있어 택시 고객의 운전 집중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올인원 디스플레이 내에서 추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와 업무 제휴를 확대할 예정이다.

니로 플러스의 가격은 세제 혜택 후 ▲택시 모델 라이트 트림 4420만원(에어 트림 4570만원) ▲업무용 모델 에어 트림 4570만원(어스 트림 4690만원)이다. 환경부 보조금 700만원과 지자체별 보조금, 택시 추가 보조금(택시 모델 한정)을 받으면 실제 구입 가격은 더 낮아진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기아 통합모바일 앱 '마이기아' 리뉴얼 론칭

기아는 통합 모바일 고객 애플리케이션을 기존 '기아 빅'(Kia VIK)에서 개인화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 '마이기아'(MyKia)로 리뉴얼 론칭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아 빅'은 차량 구매 정보부터 운행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스마트폰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의 통합 모바일 앱이다. 2018년 출시 이후 회원 수 250만명의 대형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먼저 리뉴얼한 마이기아 홈 화면을 고객 차량의 종류와 색상과 동일하게 했다. 또 사용자 데이터와 차량 상태에 따라 맞춤형 콘텐츠를 구성해 이용 고객은 주행 전 홈 화면에서 실시간 날씨와 함께 소모품이나 정비 현황 등 차량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차량 이상 감지 시 ▲차량 정비 시 ▲EV 충전 시 등 다양한 주행 상황에 맞는 필요한 메시지도 홈 화면에 표시돼 고객이 차량의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준다.

기존에 제공했던 정비 이력 확인과 소모품 관리뿐 아니라 ▲자동차 보험 ▲차량 할부 ▲주차료 등 차량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일목요연하게 표시하고 월별 유지비 차트와 항목별 지출 내역 통계를 그래프로 제공해 고객의 효율적인 차량 관리를 돕는다.

특히 정유사와 제휴를 통해 주유·EV 충전 비용과 정비 내역이 앱에 자동 입력되며 주유소 포인트도 확인할 수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